

I. 장로교회의 태동

1.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였을 때, 마르틴 루터(1483-1546), 홀드리히 츠빙글리(1484-1531), 존 칼빈(1509-1564) 등등 개혁자들이 “오직 성서”(sola scriptura),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과 같은 복음적인 주제들을 성경에서 재발견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갱신한 신앙과 신학운동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로 모든 개신교회들은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고, 또 당시에 “개혁”(Reformed)이라는 말은 “개신교”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신교 진영에서 일어난 성만찬 논쟁(마르부르크 회담, 1529년) 이후 개혁자들 사이에 분파적 경향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 1590년대 이후에 개신교는 루터파와 개혁파로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다. 그러나 츠빙글리파와 칼빈의 두 개혁 운동은 1549년의 취리히 협정에 의해 교리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자신들을 “개혁파”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개혁”이라는 표현은 그 이후 유럽 대륙의 거의 모든 칼빈주의적 교회, 곧 프랑스 개혁교회, 독일과 스위스의 개혁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 등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곧 바로 세계 도처에 퍼져나가 각각의 지역과 상황에 맞는 개혁교회의 신앙전통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개혁교회 그룹들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개혁교회’(Reformed)로서 스위스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독일 남부지역과 헝가리, 네덜란드 등 유럽 대륙으로 확산된 교회이다. 둘째는 ‘장로교회’(Presbyterian)인데, 주로 앵글로 색슨 세계에 뿌리를 내린 개혁교회들을 일컫는 개혁교회 명칭이며, 특히 영국 성공회(국가교회)의 감독체제에 대응하여 장로교 체제를 강조한 교회를 말한다. 오늘날 한국의 장로교회는 이 유형에 속한다. 셋째는 ‘회중교회’(Congregational)로서 영국의 국가교회요 감독교회인 성공회와의 갈등에서 시작된 교회이다. 회중교회는 개교회의 자율성과 권위를 강조하며, 예배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평신도들의 자율성과 권위를 강조한다. 넷째는 ‘복음주의 교회’(Evangelical)로서 19세기의 복음주의적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개혁교회를 말한다. 이들은 주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구원경험을 강조한다. 회중교회와 복음주의 교회들은 대체로 전통적인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들에 대하여 유보적이거나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

한편 ‘장로교회’라는 명칭은 장로 혹은 감독을 의미하는 헬라어 ‘프레스비테로스’(presbyteros)에서 유래된 말이며, 장로교 정치체제는 칼빈이 그의 주저 『기독교강요』에서 발전시키고 제네바에서 실행한 교회 정치에 대한 그의 이해에서 기원한다. 그러나 칼빈 자신은 교회 정치면에서 감독제도를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그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칼빈 학자들도 있다. 실제로 칼빈은 감독직의 전제적이고 독재적인 외적 형태가 제거되고 감독이 설교와 가르침과 목회적 돌봄에 충실한 한에서, 이러한 감독제도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것에 대한 증거가 폴란드와 헝가리의 개혁교회 안에 있는 감독직에 대한 칼빈의 관용적인 태도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 성공회의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와 나눈 우의가 넘치는 서신 교환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7세기 전반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은 감

독제도에 대해 강한 적대의식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잉글랜드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교회에 감독제도를 실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개혁교회 안에는 이러한 다양성이 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한 마디로, 개혁교회는 자신을 각자의 새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새롭게 신앙을 고백하며, 끊임 없이 개혁하는 교회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신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장로회 제도가 개혁교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문제인가에 대하여 아직도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장로회적인 교회정치제도가 교회의 본질에 관한 개혁교회의 신학적 확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2. 제네바 장로교회의 태동

칼빈은 1537년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에 참여한다. 그러나 칼빈의 첫 번째 제네바 체류는 반대파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무산되었고, 그는 제네바에서 추방되었다. 그 후 그는 스트라스부르의 개혁자 마르틴 부처의 요청을 받고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그곳의 프랑크 난민 교회의 목사가 되었고, 그 교회를 스트라스부르의 모델에 따라 교회의 가르침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공동체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1541년 제네바의 정치적 상황은 칼빈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칼빈은 그해 9월에 제네바에 귀환하여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권위로 개혁조치들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진 모든 생각을, 이를테면, 성만찬을 매 주일마다 거행하는 일 등을, 강요하지는 못하였다. 사람들은 일 년에 네 차례 성만찬을 거행하는 베른의 관습을 채택하였다. 그는 제네바에 복귀한 지 6주 만에 차후 수세기에 걸쳐서 교회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교회 법령집」을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것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당회가 죄를 범하였거나 정통교리를 어긴 교인들을 소환하여 신문하고, 책벌하고, 필요하다면 출교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법권과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회의 재판권을 두려워하여 이 생각에 반대하였다. 오랜 토론 끝에, 칼빈은 그의 생각을 관철시켰지만, 당장에 시행된 것은 아니고, 1555년에서야 완전히 시행되었다. 칼빈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고전 12장)인 교회는 그의 지체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지 어떤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게다가, 칼빈은 이점에 관해서 잘못을 저지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다루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는 마태복음 18장의 안내와 지지를 받는다고 느꼈다.

교회 권징의 문제는 제네바 의회와 끊임없는 갈등을 빚어냈다. 그러나 교회 질서의 측면에서 볼 때, 교회 자체가 스스로 교회의 구성원들을 지도하는 그 방식은 보다 건설적인 것이었다. 칼빈은 「교회법령집」에서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4가지 직분들 -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 있다고 규정했다(참고, 엠 4:11, 고전 12:28, 딤후 5:17, 행 6:1-3). 각각의 직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목사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행정을 담당하고 성례전(세례와 성만찬)을 거행하며 병자들을 심방해야한다. 일주일에 한번, 그 지역의 목사들은 모임을 갖고 함께 성서를 해석하고 서로 평가받아야 한다.

2) 교사들은 “신자들에게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는” 임무를 맡았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구약과 신약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 강의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언어의 지식과 일반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며, 그 교과목의 교육이 또한 교사들의 임무에 속한다.

3) 장로들은 매해 두 개의 의회에서 12명이 선출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동료들에 의해 선출

된 여섯 명의 목사들과 함께 당회를 구성한다. 이 당회는 교회의 구성원들에게서 교회의 법이 지켜지는지를 감독할 임무를 갖는다. 당회와 당회원들은 “악하거나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훈계”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회원들은 교인들의 품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또한 그들이 예배와 교육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만약 그들이 수치스럽거나 잘못된 행동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우선 친절하게 관련된 자들을 훈계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당회는 출교나 세속의 법정에 호소하는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처벌은 매우 드물게 시행되었다. 당회의 주된 활동은 부부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갈등을 중재하는 일이다. 당회는 매주 한 차례씩 목요일에 모였다. 교회법은 당회가 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정신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 모든 조항들은 언제나 너무 가혹한 짐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시행되어야 한다. 훈계조차도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 인도하기 위한 ‘약’에 불과할 뿐이다.” 당회는 세속적인 권력의 영역이나 당국의 사법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4) 집사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병자들을 보살피는 두 가지 임무를 갖고 있다. 첫 번째 임무는 구호금을 모으고, 그것을 궁핍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가져다주는 일이다. 두 번째 임무는 진료소와 외인들을 위한 여관을 운영하는 일이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진료소에서 일하는 교사의 치료비는 무료이다.

교회 안의 직분들은 그들의 임무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기능적으로 정해졌다. 물론 칼빈은 교회의 4가지 직분들 가운데 목사직이 모든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아 마땅하며 “심지어 가장 훌륭한 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신앙교육과 목회의 책임을 모두 맡고 있는 목사직의 특별한 임무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목사직의 중요성이 신분 혹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교회의 교직에 대한 이 기능적인 정의는 칼빈의 개념을 교회의 직분에 대한 모든 성례전적인 정의들과 구별이 되게 한다. 이것은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 기능을 행사하는 한 그 직분을 갖는다는 사실에서 나타난다. 그 직분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매여 있다. 이점에서 루터의 가르침과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 루터는 안수례에 매여 있고, 교회가 아니라 개인에게 매여 있는, 설교와 성례전을 거행하는 유일한 직분에 집중한다.

칼빈 자신은 생전에 그가 구상했던 참된 장로제도의 완성을 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필생을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형성하시는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사역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교회의 모든 형식적인 특징과 구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이 칼빈은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고전 12장)이며, 교회의 모든 권위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장로교 정치의 핵심 원리의 초석을 놓은 것이다. 이 장로제도는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제자였던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녹스를 통하여 발전되었고, 마침내 17세기 영국의 “개혁된” 교회에 의해 장로교 제도의 완성을 보게 된다.

II. 세계 개혁 장로교회의 형성과 발전

장로교라는 용어는 신약성서와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생각나게 한다. 이는 장로교의 두 가지 근원을 말한다. 하나는 신약성서의 사도적인 교회의 증언이며, 다른 하나는 16세기의 개신교 종교개혁이다. 현대의 장로교회는 이 두 가지 근원을 성서적, 역사적 뿌리로 갖는다.

루터, 츠빙글리, 칼빈 등 개혁자들의 새로운 주장은 당시 발달한 인쇄술의 도움을 받아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다. 모든 지역에서의 문제는 이것이었다. 중세 로마 교회에 그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로마 교회를 떠나 개혁자들을 따를 것인가? 스위스와 독일에 인접한 프랑스도 그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

1. 프랑스 장로교회

프랑스의 장로교회는 칼빈의 제네바 교회의 선교를 받은 1540년경에 생겨났다. 1555년에는 파리에 제네바 교회의 모형을 따르는 교회가 세워졌다. 이후 다른 많은 도시들에서도 개혁교회가 생겨났다. 당시 프랑스에는 약40만 명의 장로교 신자들이 있었다.

위그노로 알려진 프랑스 장로교회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그들에 대한 종교적, 정치적 박해를 불러 일으켰다. 그들의 첫 번째 신앙고백은 1557년 파리에서 박해가 가해졌을 때, 고백되었다. 1558년과 1559년 사이에 박해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을 때, 파리 교회는 용기를 얻어 공동의 신앙고백에 기초하는 교회의 헌법을 제정하려고 프랑스 교회의 전국 총회를 소집했다. 1559년 5월 23일, 72개 교회를 대표하는 20명의 대표자들이 파리에 있는 개인 소유의 집에 비밀리에 모였다. 그들은 프랑수와 드 모렐을 총회장으로 선출하고, 4일 간의 토의 끝에, 「프랑스 신앙고백서」를 작성하고 채택하였다. 이제 프랑스 교회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로 구성되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어떠한 교회도 다른 교회에 대하여 수위권을 갖지 못한다는 장로교회의 평등의 원리가 만천하에 선언되었다. 최초로 국가적인 규모에서 장로교제도가 정착된 것이다.

그러나 1570년대에 들어서면서 위그노에 대한 박해가 다시 시작되었다. 1572년 8월에는 프랑스 전역에서 수천 명의 위그노들이 학살을 당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1594년 프랑스 왕이 되기 위하여 자기 신앙을 포기한 개신교 신자 앙리가 왕이 되고, 그가 1598년에 신교도들에게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는 낭트칙령을 공포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후 위그노들은, 비록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름의 자유를 얻었다. 그러나 앙리의 손자 루이 14세는 국가의 통일과 전제적 집권을 위하여 1685년에 낭트칙령을 폐지하고, 다시 수많은 위그노를 학살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위그노들이 박해를 피하여 영국,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미국 등으로 이주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에 남은 60-70만 명의 위그노들은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이때 약30만 명의 위그노들이 프랑스를 떠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숙련된 기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정착한 지역의 경제를 풍요롭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프랑스에서 신앙의 자유가 다시 허용된 것은 프랑스 혁명 직전인 1787년 자유의 칙령에 의해서였다. 그리고 1789년 프랑스 혁명 직전에 왕은 위그노들에게 로마 교회를 통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출생신교와 결혼신교 및 사망신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위그노들은 혁명 시기 동안 그들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었다. 1802년 나폴레옹은 로마 교회와 루터교회와 개혁교회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이후 위그노들의 일치는 깨어지고 말았다. 여러 갈래의 개혁파 분파들이 생겨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세 개의 개혁파 민족교회가 형성되었으며, 곧 둘이 되었다. 그러나 이 개혁파 교회들은 1938년에 연합하기로 결의하였고, 나아가서 몇몇 자유교회와 감리교회들과 연합하여 오늘의 프랑스 개혁교회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2. 네덜란드 장로교회

네덜란드는 1520년에 루터의 작품들을 정죄하고, 1523년에는 두 명의 루터주의자들을 화형시켰다. 그러나 1523년부터 츠빙글리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1550년대 후반에는 개혁교회 형태의 개신교 교회가 확고하게 세워지게 되었다. 1561년에는 기 드 브레(Guy de Brés)가 “네

덜란드 전역에 흩어진 신자들을 위한”「벨기에 신앙고백」을 작성하였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의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분리되지 않은 한 나라로서 벨기에로 불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벨기에 신앙고백」이라고 일컫는다. 1566년에 안트베르펜에서 열린 총회는 이 신앙고백을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 총회는 이 신앙고백의 본문 몇 군데를 고쳤지만, 내용상의 수정을 가하지는 않았다. 1571년 엠덴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이 신앙고백에 공식적으로 서명하였다. 그리고 엠덴 총회는 프랑크 모델(국교 분리 원칙)에 기초한 장로중심의 교회 통치체제를 채택하였다.

1522년 벨기에의 몽(Mons)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드 브레는 1548년에 로마 교회의 박해를 피해 영국 런던에 있는 네덜란드 피난민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철저히 받은 뒤에 1552년 네덜란드 남쪽 지방에 있는 릴르의 교회에서 목회하였다. 그러나 1556년에 다시 로마 교회의 심한 박해로 인해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하여 피난민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였는데, 여기서 칼빈을 만나게 된다. 그 후 그는 제네바에 가서 칼빈과 칼빈의 제자이며 그의 사후에는 그의 후계자가 되었던 베자에게서 수학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네덜란드 교회는 개혁교회 전통의 장로교제도를 수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에 네덜란드 교회는 로마 교회에 대한 투쟁 이외에 스페인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이 문제되는 상황에 있었다. 네덜란드 교회는 스페인과의 전투를 치르면서 개혁교회 공동체의 단결을 이룰 수 있었고, 이는 이후에 개혁교회를 위한 동력의 원천이 되었다.

1619년 도르트 회의의 국제적 비중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네덜란드 장로교회는 17세기 초에 개혁교회 사상의 매우 유력한 중심지가 되었으며, 또한 아르미니우스 논쟁으로 알려진 유명한 신학논쟁의 무대가 되었다. 1651년에 네덜란드 장로교회는 국가교회로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일어난 1795년의 바타비아 혁명은 네덜란드 장로교회를 국교 분립의 교회로 만들었다. 이후 다른 개신교회들과 로마 교회, 그리고 유대교가 더 큰 신앙의 자유를 허락받았다. 하지만 1848년의 헌법은 모든 교파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 네덜란드 장로교회는 계속 큰 영향을 발휘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세속주의와 분열이 지배적이 되어 갔다.

3.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루터의 종교개혁이 1520년대에 스코틀랜드에 소개되자마자, 그 운동은 불일 듯이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1525년에는 루터의 책이 수입 금지되었고, 1528년에는 루터주의자였던 페트릭 헤밀톤이 화형을 당했다. 개혁교회 형태의 개신교를 스코틀랜드에 도입한 것은 스위스에서 개혁교회 신학을 배운 위샤트(G. Wishart)로서 그는 「제1 헬베틱 신앙고백서」를 스코틀랜드에 소개하였다. 그 후 칼빈의 영향을 크게 받은 존 녹스(John Knox)가 작성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1560년 국회에서 채택된 이래 스코틀랜드는 개혁교회 전통을 따르는 나라가 되었다. 개혁작업의 일환으로서 제시되었으나 1560년에 채택되지 않은 「제1 교회규정집」은 칼빈의 정치제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후 장로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완전한 형태의 장로정치제도는 제네바에서 공부를 하고 1574년에 스코틀랜드에 돌아온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le)에 의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존 녹스의 지도 아래 스코틀랜드 교회는 로마 교회에 맞서서 성공적으로 그 존재를 유지해 나갔다. 그러나 1572년 녹스의 사망 이후, 스코틀랜드 교회는 영국 성공회 형식의 감독체제를 택하게 된다. 이 때 멜빌과 그의 동료들은 다시 장로교 체제를 주장하였고, 1592년 국회가 이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장로교 체제와 감독 체제 사이의 문제 혹은 교회와 국가 사이의 쟁투

가 해결되는 듯 했으나 이 문제는 향후 약 1세기 동안 계속 현안으로 남아야 했고, 17세기 후반에서야 비로소 스코틀랜드 교회는 철저한 장로교제도를 수립하게 되었다.

4. 영국의 장로교회

영국에서 개혁교회는 에드워드 6세(1547-1553)의 통치 동안에 강력하게 확장되었다. 이미 1534년 헨리 8세(1509-1547)는 “수장령”(The Act of Supremacy)을 공포하고, 왕이 영국교회의 최고의 머리라고 선언함으로써 로마 교황청과 결별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다. 영국의 성공회가 헨리 8세에게서 기원한다면, 영국 개혁교회는 헨리 8세의 유일한 적자인 에드워드 6세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에 마르틴 부처는 그의 여생의 마지막을 영국에서 보내고 있었다. 칼빈은 캔터베리의 대주교 크렌머 및 에드워드 6세의 후견인 서머셋(Somerset)와 직접 서신을 교환하기도 하였다. 당시 칼빈과 영국의 개신교도들 사이에는 에드워드 6세가 그의 아버지에 의해 시도된 교회의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는 희망이 널리 퍼져 있었다. 크렌머가 작성한 성공회의 신앙조항 「39개조」는 개혁교회 신학의 영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예성론, 성만찬에 대한 진술에서 특히 개혁교회적이다. 그러나 에드워드 6세는 개혁파 신자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위대한 개혁파 군주제의 희망을 무산시키면서 1553년에 너무 일찍 죽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였다.

에드워드 6세의 뒤를 이어 그의 누이인 메리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열렬한 가톨릭 신자인 그녀는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개신교 신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많은 개신교인들이 취리히와 제네바로 피신하였다. 그들은 칼빈과 츠빙글리의 후계자 불링거(H. Bullinger)에게서 개혁교회 신학을 배울 수 있었고, 신교도였던 엘리자베스 1세가 1558년에 메리 여왕을 처형하고 영국 왕 위에 오르자, 다시 돌아와서 1560년대부터 영국에 장로회제도를 정착시키게 되었다. 이것이 영국 청교도 전통의 시작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은 중세 가톨릭 교회의 의식과 조직들을 가능한 한 고수하려고 노력한 점에서는 ‘가톨릭적’이었다. 이것이 청교도들의 불만을 일으켰다. ‘청교도’라는 명칭은 그들이 엘리자베스 1세 치하 초기에 성직자들의 가톨릭적 예배와 의식을 배척함으로써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예배의 ‘청순’(purity)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에서 연유되었다. 그들 가운데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인이었다. 즉 보다 단순한 예배 의식을 요구한 것 외에도 그들은 교회가 감독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사와 장로들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어떠한 변경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브라운(R. Browne), 바로우(H. Barrow) 및 그린우드(J. Greenwood)는 엘리자베스 통치 하에서는 성공회가 진정으로 개혁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분리 독립하여 비국교적인 교회를 세웠다. 바로 이것이 영국에서 장로교회, 회중교회 혹은 독립교회의 기원이다.

엘리자베스가 1603년에 죽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1567-1625)가 제임스 1세라는 이름으로 영국의 왕까지 겸하게 되었다. 지독히 귀족적이었던 제임스 1세는 장로정치 특징인 대의 민주주의적 경향을 이유로 장로제도에 격렬히 반대하였고, 그래서 장로제도를 점차 감독제도로 변형시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였다. 그의 아들 찰스 1세(1625-1649)는 제임스 1세보다 더 심하게 청교도들을 핍박하였다. 일부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뉴잉글랜드의 플리머스에 정착한 때가 바로 그 무렵이었다.

영국 교회를 근본적으로 정화시키려는 청교도들의 노력은 1640년에 이르러 결실을 얻게 되었다. 국회가 청교도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따라서 권력도 청교도들이 장악했다. 1640년의 국회 다수파는 장로제를 당신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청교도들이었다. 그래

서 1643년의 국회는 “교황제, 고위 성직제를 근절시키기로 노력한다...”는 엄숙한 서약을 선서하였다. 같은 해에 최초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렸다. 국회는 총회를 위하여 151명을 지명했다. 그중 30명은 국회의원들이었고, 나머지는 목사들이었다. 또한 5명의 스코틀랜드 목사가 참여했는데, 그들은 투표권은 없으나 토론에 참여할 권한은 가지고 있었다. 국회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영국 성공회의 신앙고백서인 「39개조」를 수정하게 하였다.

총회가 이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국회는 찰스 1세와의 전쟁에 말려들었다. 이때 국회는 스코틀랜드에 군대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스코틀랜드는 영국 국회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정치 체제'를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동시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4명의 감독관을 파견하여(이들은 투표권을 갖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작성을 위하여 역할하게 하였다. 총회는 마침내 1647년에 「장로교 정치의 형태」, 「예배 모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두 개의 부대 문서인 「긴 신앙문답서」와 「짧은 신앙문답서」를 완성하였다. 이 문서 하나하나가 영국 국회에 의해 인준되었고, 국회는 총회로 하여금 성서적 증거 구절들을 첨가하도록 요청하였다. 1647년 8월에는 스코틀랜드 총회도 1560년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와 독일 개혁신회의 대표적인 신앙고백 문서인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서」대신에 웨스트민스터의 표준들을 채택하고 교회에서 사용하게 하였다. 이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300여 년 동안 영어권 장로교회의 표준 신앙고백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찰스 1세와의 대결에서 승리로 이끈 크롬웰이 죽은 후, 1660년대에 영국의 장로교회는 다시 박해받는 소수 무리가 되었다. 찰스 2세(1660-1685)는 감독체제를 법제화하여 스코틀랜드 목사들이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감독으로 안수례를 받게 하였고, 동시에 2,000명의 목사들이 영국에서 목사 지위를 박탈당하였다. 이들 중 대부분은 장로교인들이었고, 약간의 회중교회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1688년의 명예혁명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교회로 하여금 각각 자신의 교회정치 체제를 추구하게 하였다. 영국에서는 국가 교회의 감독체제가 이어졌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 체제를 다시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1707년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대영제국으로 연합하였고, 양국의 연합 협약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18세기 영국의 장로교회는 점차 쇠락의 길에 들어섰으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지속적인 후원에 의해서 19세기 후반에는 영국 자체의 장로교회의 발전을 맞게 된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18세기 이후 몇 차례의 분열을 거듭하다가 1900년과 1929년에 두 차례에 걸치는 대연합을 이루어낸다.

5. 독일, 폴란드, 헝가리 장로교회

독일의 루터교회는 아우구스부르크 회의(1555) 이후에 독일의 개신교회 내에서 지배적인 교회가 되었다. 그러나 아우구스부르크 평화협정을 통해 결정된 지역별 교파의 자유는 독일 내 일부 지역에서 개혁교회가 활로를 찾을 수 있게 하였다. 비록 독일 개혁교회는 소수에 불과했지만, 1563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혁교회 및 장로교회 세계에 가장 광범위하게 알려진 신앙고백 문서들 가운데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서」를 발표하였다. 1563년은 로마 가톨릭 측의 반종교개혁이 시작되던 시기였고, 독일의 “개혁된” 교회가 안정을 찾아가던 시기였으며, 루터파들과 칼빈주의자들 사이에 격렬한 신학논쟁이 전개되고 있던 시기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팔츠의 선제후 프레드리히 3세는 교회와 특히 예배의 일치를 위하여 멜랑히톤, 칼빈, 불링거 등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젊은 신학자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에게 양쪽 진영이 다 수락할 수 있는 신앙문답을 준비하게 한 것이다. 1542년에 출판된 칼빈의 「제네바 신앙문답서」는 그들이 신앙문답서를 작성할 때 결정적인 본보기로 작용하였다.

개혁신교회는 1817년 이후 루터교회와 연합을 이루어 '연합교회'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4개의 지역별 루터교회(Landeskirchen)는 각각 자체 내의 자율을 유지하면서 '독일 개신교회'(EKD, the Evangelical Church in Germany)를 형성하고 있다. 오늘날 독일 내의 개혁신교회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개혁신교회는 칼빈이 생존해 있을 때 폴란드에도 도입되었다. 지기스문트 왕은 칼빈과 서신을 교환하던 인물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런던과 엠덴에서 목회하던 존 아 라스코(John à Lasco, 1499-1560)가 1556년에 폴란드에 돌아와 개혁신교회를 세웠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1570년에는 개혁신교회, 루터교 및 체코 형제단이 「산도미르 합의 신앙고백」을 채택함으로써 개신교회들은 이후 수십년 동안 폴란드의 국가 차원의 삶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서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반(反)종교개혁이 폴란드에서 대단한 효력을 발휘하였고, 그 후 폴란드에서 개혁신교회는 그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다.

헝가리에서 루터파는 이미 1523년 이전부터 활약하고 있었다. 그러나 헝가리를 터키와 신성로마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킨 애국자 보케이(Stephen Bocskay)는 칼빈주의자였다. 그리고 그의 활동은 제네바 종교개혁 기념비에 기록되어 있다. 헝가리 개혁신교회 공동체는 관할권을 갖지만, 그러나 특별한 어떤 위계상의 지위는 없는 감독 또는 주교를 포함한 정치제도를 발전시켰다.

6. 미국과 캐나다 장로교회

미국에서 개혁신교회는 서로 다른 유럽 이주민들에 의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크게 세 부류로 구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분리주의 청교도들에 의한 플리머스 정착(1620)과 영국 국교 신봉 청교도들에 의한 매사추세츠 정착(1628)이다. 이들은 최초의 개혁신교회 공동체들을 이루었고, 1646-48년에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 대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약간의 수정을 거쳐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선택한 교회정치제는 회중정치제였다.

미국에 개혁신교회 정신을 도입한 두 번째 그룹은 네덜란드 개혁신교회이다. 그들은 1624년 뉴욕(당시는 뉴암스테르담)에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뉴욕이 1644년에 영국의 영토가 되었지만, 네덜란드 개혁신교회 공동체는 계속 번성하였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신앙고백 문서들, 곧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서」, 「도르트신조」(칼빈주의 5대 강령) 등 16세기와 17세기의 중요한 칼빈주의 신학적 유산들도 가져왔다. 네덜란드인의 이민이 증가함에 따라 네덜란드로부터 독립된 네덜란드 개혁신교회가 미국에 세워졌다. 이것이 미국 개혁신교회의 시초이다.

세 번째로 미국에 개혁신교회 전통을 도입한 이들은 스코틀랜드 사람들과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 사람들이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1651년에 처음 크롬웰에 의해 고용된 신분으로 미국에 보내졌다. 먼저 정착한 청교도들은 저들이 서부에 식민지를 개설하여 인디언들에 대한 방어벽이 되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1714년 이후 많은 수의 울스터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주하여 보스턴에 정착하였다. 이들은 이미 정착한 뉴잉글랜드 청교도들과 충돌하였고, 그래서 이들은 서부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등으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1746년에는 대규모의 고지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북부 캐롤라이나의 케이프 피어 지역에 강력한 장로교회 정착지를 건립하였다. 1763-1775년 동안 스코틀랜드로부터 식민지 미국에 이주한 사람의 수는 약 2만 5천명이나 되었다. 이들은 이미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과 합세하여 개혁신교회 신학전통의 장로교회를 발전시켜나갔다. 1706년에는 최초의 노회를 개최하였고, 1717년에는 제1차 대회를 열었다. 1729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을 그들의 신앙고백으로 채택하였고, 급기야 1788년에는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캐롤라이나 등 네 개의 대회를 포함하는 총회를 구성하였다. 미국 장로교회의 역사적 발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스코틀랜드와는 대조적으로 국가가 아니라 회중에 의해서 노회, 대회, 총회로 발전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 장로교회는 진보파와 보수파의 대립에 의해 1837년 4개의 장로교단으로 분열되었다. 그러나 남북전쟁을 거치며 19세기 후반에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로 재편되었다. 그리고 북장로교회는 1967년에 「미국 장로교회 신앙고백서」를 채택하였는데, 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이후 거의 3세기만에 처음으로 장로교회가 새롭게 신앙을 고백한 역사적 신앙문서이다. 미국의 장로교회는 1983년에 남북 장로교회가 연합하여 연합장로교회를 형성하였다.

캐나다에 개척교회 전통이 소개된 때는 18세기 후반이다. 당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몇몇 스코틀랜드 교파가 각각 캐나다에 각각의 지부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1875년에 이 여러 교파들이 하나로 모여 캐나다 장로교회를 결성하게 된다. 그리고 1925년에는 캐나다 장로교회가 감리교회, 회중교회와 연합하여 캐나다 연합교회를 형성하였다. 캐나다 장로교회 중 이 연합에 참여하지 않은 교회는 소수에 불과하다. 오늘날 캐나다 개척교회는 연합교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7. 한국 장로교회

19세기는 교회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개신교 선교의 시대였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등에 속속 개척교회가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한국에도 1884년 말에 미국 북장로회의 의료선교사 알렌이, 그리고 1885년 4월에는 교육선교사 언더우드 등이 들어오면서 한국에 장로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01년에는 미국의 남북 장로교 선교부,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 및 호주 장로교 선교부가 장로교 선교 협의회(The Council of Missions)를 구성함으로써 '조선 야소교 장로회 공의회'라고 하는 하나의 장로교 연합기구가 생겨났고, 동년 5월에는 평양신학교가 개교하였다. 1907년 9월 17일에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최초의 조선 예수교장로회(독)노회를 조직하였고, 이어 1912년에는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를 처음 개최하였다.

한국 장로교회는 일제강점기 동안 무엇보다도 의료, 교육, 복지 분야에서 한국 사회에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장로교회는 일제의 탄압에 맞서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내적·외적인 동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1938년 평양신학교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대한 항거로 자진 폐교를 하였을 때는 기호 지방의 교회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1940년에 장로교 신학교(조선신학교)를 세움으로써 자주적인 한국교회사를 펼쳐나가기 시작하였다.

한국 장로교회는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선교사들이 전해 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신앙문답서」, 그리고 그 요약이라고 믿었던 「12신조」만을 권위 있는 신앙의 표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장로교회의 1967년의 신앙고백서는 한국 장로교회에 신선한 자극으로 작용하였다. 1972년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새로운 「신앙고백서」를 작성·채택하였고, 1986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이 「대한예수교장로회신앙고백서」를 작성·채택하였다.

현재 한국의 장로교인들은 600만명 이상을 헤아리며, 한국의 정치·사회·경제 등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장로교회는 1945년 해방 이후에 사분오열을 거듭하여 '2004년 한국 기독교 교단 교세 현황표'를 참조하면 주요 장로교단만 50여 교단에 이르고 있다. 신사참배 반대 문제, 성경의 권위와 성서비평학의 문제, 신학적 보수와 진보의 갈등,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신학과 이념의 대결 등등 한국 장로교회를 분열시킨 원인들은

다양하다. 그러나 세계 장로교회의 추세는 분열이 아니라 일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프랑스 장로교회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과 미국에서 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성공적으로 일어났다. 이는 “갈라진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때문일 것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 장로교회의 통합이 성취되기를 소망한다.

Ⅲ. 장로교의 신앙고백

1. 신앙고백의 의미와 필요성

모든 강력한 확신들의 경우처럼 신앙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입으로 표현하기를 원한다. 사도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라고 분명하게 선언한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고백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따라서 신앙이 참되게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나 신앙고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고백은 마치 교회의 자화상과 같다. 어떤 하나의 신앙고백서는 특정한 공동체가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언제나 교회 안팎에서 교회의 신앙과 일치를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세력에 직면하였고 그때마다 공통의 신앙을 고백하여 교회의 방향을 지시해 왔다. 「사도신경」을 비롯하여 초대 교회의 여러 에큐메니칼 신조들과 종교개혁 당시에 나온 신앙고백서들은 그 같은 역사의 도전들에 대한 교회의 신앙의 대답들이다. 특히 초대 교회와 종교개혁의 때에 수많은 신앙고백들이 쏟아져 나온 이유는 그 같이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에 교회가 교회의 구성원들과 또한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를 분명히 선언할 필요를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각각의 신앙고백은 그것이 만들어진 당시의 시대적 관심사들을 다루고 있지만, 신앙고백은 교회의 단순한 역사적인 문서 이상의 것이다. 신앙고백은 우리를 신앙의 선진들과 교제하게 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하나로 연결시켜준다. 예컨대, “나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는 고백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유대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 혹은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결속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표명한다. 또한 신앙고백은 교회가 성서에서 증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과 성서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어떤 지침을 제공해준다. 따라서 신앙고백은 교회가 건전한 신앙과 교리를 유지하고, 교회가 처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복음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유지를 위하여 신앙고백을 필요로 한다. 어떤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자 할 때, 혹은 예배시에 회중의 신앙을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 혹은 목사나 장로, 집사 등 교회의 직원을 임명할 때에 교회는 신앙을 고백할 필요성을 갖는다. 예컨대, 목사와 장로는 임직시에 교단의 신조와 신앙문답을 믿고 따를 것인지, 정치와 권징조례, 그리고 예배모범을 인정할지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한다. 장로교의 신앙고백서와 거기에 표현된 장로교 신앙의 기본 교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 서약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벧전 3:15)는 사도의 말씀은 여기에 적중된다. 우리가 다른 교회들과 달리 무엇을 믿는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이 진리의 표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이 시대 장로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이다.

2. 장로교회의 신앙고백들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의 신앙문서들을 장로교의 표준 신앙문서로 간주하지만, 회중교회나 복음주의 교회와는 달리 전통적인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들도 장로교의 신앙고백들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루터와 멜랑히톤 등에 의해 같은 지리적 조건 하에서 8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이 기록된 루터교회의 고백서들과 달리¹⁾ 개혁교회는 처음 150년 동안 매우 다양한 시기와 장소에서 주목할 만한 신앙고백서들을 적어도 50가지나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듭 세계 도처에서 새로운 신앙고백을 만들어내고 있다.

개혁교회가 루터교회와 달리 이 많은 신앙고백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신앙고백에 비하여 성서를 더 중요시하는 성서의 우위성에 대한 개혁교회의 강조 때문이고,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개혁교회는 언제나 신앙고백이 성서와 일치하는가 하는 물음을 계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이것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서문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의 신앙고백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모순되는 어떤 장이나 문장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는 우리에게 가장 큰 친절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 자신이 입으로 하신 말씀 즉 성서를 통하여 그를 만족시키거나 혹은 그가 잘못된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교정할 것을 약속한다.” 이런 식으로 1536년의 「제1 헬베틱 신앙고백서」는 30년 뒤에 「제2 헬베틱 신앙고백서」로 대체되었다. 130년 동안 권위를 지니고 있던 1560년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를 위해 1690년에 파기되었다. 마찬가지로 칼빈은 1536년의 「신앙문답서」를 1545년의 「신앙문답서」로 대체하였고, 그 본래적인 의도와 형식에서 실제로 신앙고백적 문서이고 프랑스 개신교인들을 위한 변증이었던 그의 대작 『기독교강요』는 그의 생애 동안 부단히 개정되었다. 이것은 개혁교회가 언제나 각자의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고백되어야 하는 성서에서 증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라는 것을 명확히 해준다. 바로 이것이 또한 종교개혁 이후 복잡한 양상을 띠고 발전한 개혁교회의 모든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개혁교회가 자신의 특징을 나타내는 몇 가지 교리적 강조점을 공유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 장로교회는 1967년에 웨스트민스터의 표준에 고대의 신조들과 종교개혁 시기의 신앙고백들, 그리고 두 개의 20세기의 신앙고백들을 접맥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신앙고백서 모음』(Book of Confessions)에는 두 개의 가장 오래된 신조인 「니케아 신조」와 「사도신경」이 있으며, 네 개의 각각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신앙고백, 즉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제2 헬베틱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967년 신앙고백」이 들어 있고,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 「웨스트민스터 긴 신앙문답」, 「웨스트민스터 짧은 신앙문답」등 세 개의 신앙문답이 있으며, 한 개의 신학선언인 「바르멘 신학선언」과 마지막으로 1991년 볼티모어 총회에서 채택한 신앙증언인 간추린 신앙고백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2003년에 펴낸 『장로교 신조 모음』에는 『신앙고백서 모음』과 달리 「웨스트민스터 긴 신앙문답」을 제외하고, 「제1 헬베틱 신앙고백서」, 「제네바 신앙고백서」와 「제네바 신앙문답서」, 그리고 「프랑스 신앙고백서」등 4개의 종교개혁 시기의 신앙고백 문서들

1) 루터교회가 인정하는 신조는 9개가 있다. 그 중 셋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사도신조,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이고, 나머지 여섯은 새로 제정한 것인데,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의 변증서, 슈말칸트 신조, 루터의 길고 짧은 신앙문답, 6명의 루터파 신학자들이 작성한 일치신조 등이 그것이다.

을 새롭게 추가하고, 여기에 한국 장로교회의 첫 번째 신앙고백서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신앙고백서」와 「신앙문답서」를 첨가한 15개의 신앙고백 문서들이 실려 있다. 『장로교 신조 모음』이 새로 추가한 4개의 종교개혁 시기의 신앙고백 문서들 가운데 첫 번째 「제1 헬베틱 신앙고백서」(1536)는 종교개혁 초기에 루터파와 개혁파의 일치를 위해서 작성한 문서이며, 나머지 3개의 문서들은 칼빈이 직접 작성했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신앙고백서들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활력과 개혁의 정신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는 신앙고백서들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장로교 신앙고백서 모음에 실린 신앙고백 문서들은 장로교 신앙의 주제와 핵심 내용에 대한 충실한 길잡이가 되리라고 본다.

3. 장로교 신앙고백의 특징과 강조점

1) 하나님 중심

장로교 전통의 가장 기본적이며 포괄적인 특징은 하나님 중심적 사상과 삶이다. 이 하나님 중심주의는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장로교의 저 유명한 표어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이 표어는 흔히 “하나님은 전부이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말한다고 오해를 받았다. 칼빈이 “인간의 최상의 행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가 사실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칼빈은 인간과 인간의 삶을 결코 비하하거나 도외시하지 않았다. 칼빈은 그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을 함께 고려하였다. 그가 『기독교강요』제1권 첫 문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의 신학과 삶 전체를 규정하는 하나의 규범과도 같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며 온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이것은 확실히 칼빈의 신학의 ‘변증법적 성격’을 말해준다. 칼빈은 하나님을 별문제로 하고는 결코 인간의 삶 혹은 인류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물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고려에서 언제나 ‘앞서는 것’,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인간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나서, 다음으로 자신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는 한, 결단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기독교강요』, I.1.2).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의 이 변증법적인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는다. 그러나 칼빈이 그리는 하나님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다.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광받기를 원하시며, 인간과 인간의 삶에 가장 적절한 목표를 정해 주시고, 이렇게 인간과 그의 삶을 목적과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간 없이 홀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고자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다. 이와 같이 칼빈의 사상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자기 영화 속에 참여하고 존재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표어는 하나님과 인간,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결단 양쪽 모두를 말하는 성서의 증거에서 다만 앞부분, 곧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것일 뿐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인간은 단 하나의 선행도 자기에게 돌릴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당시 로마 가톨릭교회의 신학자들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할 고유한 힘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 주장의 성서적 근거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는 바울의 진술에서 찾는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바울의 진술을 왜곡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다른 모든 사도보다 낫다고 말한 것이 너무 거만하게 보일까봐 하나님

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일컬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저들이 사용하는 라틴어 번역판 ‘불가타역 성서’가 아니라 바울의 헬라어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가 진정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와 협력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는 은혜가 모든 것의 원인이다”는 것이었다고 저들을 논박한다(『기독교강요』, II.3.11-13).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자유에 대한 장로교회의 강조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섭리에 대한 전통적인 개혁교회의 신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개혁자들이 성서에서 발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와 생명이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는데, 그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을 까닭이 어디 있겠으며, 그의 예정과 섭리를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또 어디 있겠는가! 이와 같이 개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서 도덕적, 윤리적 당위성이나 율법적 강제 때문이 아니라,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적이란 곧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동시에 성령 중심적이라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장로교 신학이 하나님 중심적 특징을 갖는다는 것은 곧 철저히 삼위일체적 특징을 지녔다는 말이다.

2) 성경 중심

장로교회는 또한 말씀 중심의 교회, 달리 말하면 성서를 최종적인 권위로 삼는 교회이다. 그러면 혹자는 곧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성서를 배타적이며 최종적인 권위로 삼지 않는 교회도 있는가? 예, 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만, 성서와 나란히 교회의 교리전통, 교회의 결정을 중시한다. 중세 후기의 핵심적 쟁점은 교회가 성서에서 발견하거나 추론할 수는 없지만 전해진 전승들 가운데서 정경과 동등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념 혹은 교리들을 회중에게 선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로마 교회는 그렇다고 했고, 루터와 칼빈을 포함하는 개혁자들은 성서와 동등한 권위를 갖는 다른 어떤 계시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거부했다. “오직 성서만”이라는 구호는 바로 이 계시의 다른 원천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종교개혁 전체의 주제였다. 그러나 이 원리를 일관되게 관철시킨 것은 개혁교회였다. 유감스럽게도 루터교회의 「일치신조」(1577)에서 자주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같은 대구(對句)는 루터 이후에 루터교회가 다시 로마 가톨릭의 “속명적인 이원론”으로 회귀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교회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리스도와 나란히 서 있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권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성서만”을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받아들였다. 「제네바 신앙고백서」 첫 문단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우선, 우리는 신앙과 경건의 규칙의 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인간의 생각으로 날조된 어떠한 것을 성서와 혼합하지 않고서 단지 성서만을 따르고자 한다는 것을 공언한다.” 칼빈의 영향을 가장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프랑스 신앙고백서」는 “성서는 모든 진리의 척도이며... 오직 모든 것은 성서를 따라서 검토되고, 규정되며, 개혁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개혁교회는 이렇게 처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그 진리는 오직 성서에만 담겨 있고, 따라서 모든 교리는 성서의 표준에 따라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이 성서의 토대 위에 교회와 사회의 모든 제도와 법규를 근거시키려고 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종교개혁의 ‘형식원리’라고 일컬어지는 개혁교회의 ‘성서원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성서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유일한 진리이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확실한 규칙과 모든 진리의 척도가 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말씀을 발설하는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사실상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

칼빈은 이 물음들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성서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에서 발견한다. 칼빈에 의하면 성서의 권위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대로 교회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직접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직접 듣는 것처럼 생각될 때에만 성서는 신자들 가운데서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만이 그 자신에 대한 유일한 참된 증거가 되시기 때문이다. 만약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장이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증명될 수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는가? 따라서 칼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성서의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부과하는 자기 증거의 계시에서 찾는다(『기독교강요』, I.7.1). 이것은 칼빈이 성서의 신적인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 인간의 이성과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내적 증거”에 호소했다는 것을 말해준다(『기독교강요』, I.7.4). 이 “성령의 내적 증거”는 성서의 기자와 독자를 감화·감동시켜서 공통의 목표에 인도하는 성령의 사역을 뜻하는데, 「프랑스 신앙고백서」는 이 “성령의 내적 증거와 조명”에 의해서만 우리가 성서를 교회의 다른 문서들과 구별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진술한다.

우리는 칼빈의 이 성서영감론을 소위 17, 8세기 칼빈주의적 정통주의자들의 ‘축자영감설’과는 구별해야 한다. 칼빈이 성서의 기자들을 성령의 기관과 도구로 생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서의 확실성을 문자 자체에서 발견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증거에서 발견하였다. 바꿔 말하면 성서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문자 자체가 갖고 있는 신적인 권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는 성령의 역사(役事)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서에 기록된 문자로서의 인간의 말 사이에 그 어떤 본질적인 일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계시된 말씀을 성서의 기록된 말씀과 조화시키고, 그로써 그 기록된 형식을 신비롭고 은혜롭게 그의 자기 계시에 적용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말과 진술의 형식으로 성서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서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발견은 칼빈과 다른 개혁자들로 하여금 로마 교황의 권위 및 성서와 교회 전통에 대한 로마 교회의 입장을 거부하게 하였다. 개혁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최고의 권위로 여겼고, 교회를 위한 그의 말씀과 뜻은 성서를 통해서만 알려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인간적 권위들은, 그것이 신조이든, 교회 공의회들이든, 또는 교회의 다른 가르침들이든 간에, 교회에서 단지 보조적이고 파생적인 권위를 지닐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장로교회는 개혁자들의 이 “오직 성서만”의 원리를 그대로 따른다.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하신 말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로교회는 교권과 특정 교리의 합리화를 위해 성서를 사용하는 모든 형식의 교권주의나 문자적 형식주의를 배제한다.

3)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예정론

장로교 신학의 특징은 또한 예정론에서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예정론은 매우 사변적인 교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칼빈의 예정론은 그의 실제적이고 목회적인 관심에서 유래한다. 그 자신이 절실히 체험한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기쁘게 신앙으로 응답하는데 반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은 반응이 없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그는 이 곤혹스러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인간의 개성 혹은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에서 찾았다(참고, 엡 1:4). 칼빈은 이 교리가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은 거부하는가 하는 문제에 답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자비와 은혜에 근거해 있다는 확신을 준다고 생각했다.

칼빈은『기독교강요』에서 이 예정론을 신자의 삶에 대한 진술 뒤에서 다룬다. 그것은 예정론이 신앙생활의 첫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에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고전 15:10)라는 바울의 진술대로 칼빈은 신앙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칼빈에 의하면 선택의 교리는 “유용하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너그러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때문이다(『기독교강요』, III.21.1). 이러한 칼빈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많은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일부가 거부하고, 오늘날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칼빈 자신이 “두려운 교리”라고 말한 소위 “이중 예정”에 대한 견해이다. 이것은 태초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정해졌다는 것인데, 이 교리가 인간의 이성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놀라울 일도 아니다. 그것은 부당하고 독단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사람들에게 그들의 결정에 대해 무책임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칼빈은 그 교리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관하여 말하는 성서적 근거를 확실히 갖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관점이었다. 칼빈은 이 교리에 대해 제기되는 불평들을 인정하고 그 자신이 물음을 제기한다. 왜 주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왜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을 가하시는가? 그는 단순히 대답한다. 이 이유를 아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리고 그는 그의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감춰진 작정을 캐내려 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판단”(롬 11:33)에 비하여 우리 지성은 너무 둔하고 우리의 지혜는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이다. 만약 자기의 우매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엄을 꿰뚫어 알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만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압도될 뿐이다. 칼빈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에게 회상시켜준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롬 9:20). 그러나 칼빈은 예정에 대해 기술할 때, 언제나 목회적인 고려를 빠트리지 않았다. 그의 첫 번째 「신앙문답서」에서 선택과 예정에 관한 항목은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과 함께 마무리 된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한, 우리는 동시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소유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더 이상 캐물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 반사되는 거울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확인시키시는 보증이시기 때문이다.”

이 예정론은 결코 칼빈의 핵심 교리는 아니다. 그는 복음 선포의 결과에 따르는 당혹스러운 결과를 설명하려는 맥락에서, 예정론을 구원론과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하여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칼빈의 동역자이며 후계자였던 베자에 의해 예정론은 루터파의 경우에서와는 전혀 다르게 개혁교회 신학의 중심적 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대략 1570년 이후로, “선택”이라는 주제가 개혁교회 신학을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개혁교회 신학자들이 이 개념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개혁신교회 회중을 손쉽게 동일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저 옛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과 같이 이제 개혁신교회 회중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이 시기 이후로 예정론은 중요한 사회적·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칼빈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인 개혁신교회 회중 사이의 계약의 이념을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했던 계약에 병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그 결과 이 통찰은 급속하게 확장되어 가던 개혁신교회에서 커다란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백성의 의무를 규정하는 “은혜의 계약”은 개인들과 사회가 준수해야 하는 전체적인 틀을 제공해주었다. 이 신학은 영국에서 청교도주의(Puritanism)로 발전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가슴 벅찬 감정은 청교도들이 새로운 약속의 땅 신대륙에 들어갔을 때, 더욱 고조되었다. 이와 같이 장로교회는 이 예정론을 통해 하나님과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던 것이다.

4) 신앙에 앞선 성령의 강조: 신앙을 통해 은혜로 의롭다는 여김을 받음

칼빈은 신앙을 성령론 속에서 다룬다. 이것은 신앙이 성령의 선물이며,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먼저 말하지 않고는 신앙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신앙보다 성령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은 칼빈을 따르는 장로교 신학의 특징인데, 이점은 칼빈의 의인론을 루터의 그것과 비교할 때 분명히 드러난다.

의인론은 신앙을 통해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적인 교리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여김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즉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롭다는 여김을 받은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고 깨끗해져서 의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은 강조하는 바가 서로 크게 다르다. 루터는 신앙을 통해 은혜로 의롭다는 여김을 받는다는 이 주장에서 강조점이 ‘신앙’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칼빈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강조점을 둔다. 칼빈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근거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신앙의 주체는 우리의 종교적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분명히 한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신앙을 일으키는 일이며,²⁾ 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기독교강요』, III.1.1-4).

그러므로 “오직 신앙만”이라는 종교개혁의 표어는, 그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서 사건이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언급되지 않는다면, 신앙 자체가 의의 조건이 되고 결국 인간의 능력으로서의 신앙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탈선이 중세 후기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신적인 업적 중심의 경건주의를 낳았고,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오류인 신앙의 인간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20세기에는 무서운 나치의 유혹 앞에서 유일한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항거하는 ‘독일적 그리스도인의 신앙운동’과 같은 반역을 낳았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사실을 떠나서 “오직 신앙만”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우리자신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발견되며, 구원의 확실성은 우리자신

2)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는 이것을 정확히 거꾸로 표현한다: “성령은 신앙을 통하여 받는다.”

의 계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은혜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이 좋다’, ‘신앙이 강하다’는 말을 함으로써 사람이 신앙의 주체인 것처럼 착각하고 신앙을 인간의 노력과 행위의 산물로 보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 참된 신앙은 다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일이다.

5) 신앙과 삶의 일치: 윤리에 대한 강조

개혁교회의 신앙고백들은 세상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칼빈의 영향에 의한 것인데, 그는 “헛된 사변”과 신학의 공허한 철학화를 싫어하고 언제나 “건전하고 결실을 맺는”, “유용하고”, “유익한” 교리에 관심을 가졌다(『기독교강요』, I.2.2; 5.9; 13.20). 이러한 칼빈의 정신은 개혁교회의 신앙고백문서들에 그대로 반영되고, 개혁교회 신학의 독특한 특징이 되었다. 예컨대, 인간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면, 그가 자기의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로마서를 권장했지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바울의 신앙에 의한 의인의 교리(롬 3:27)와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약 2:26)는 야고보의 경고 사이에서 어떠한 혼란을 겪지 않은 것이다. 예컨대 「프랑스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동시에,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낳게 한다”고 천명한다. 신앙과 삶의 일치에 대한 개혁교회의 이 같은 강조가 루터교회의 교리와 다르다는 것은 “공허하고 나태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있고 활발한 믿음”이 문제된다고 말하는 「제2 헬베틱 신앙고백서」와 신앙과 선한 행위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가, 또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대해 힘겨운 토론을 벌인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분명해진다. 이후 이 같은 신앙과 행위, 교리와 윤리의 아름다운 결합은 개혁교회 신앙고백서들에서 전형적인 것이 되었다.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강조는 자칫 바리새파적 업적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이 오류에 빠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선한 행위의 원인이 성령이라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위들”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의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선행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지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는 “선한 행위의 원인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영에 있다”고 고백한다. 그러므로 개혁교회에서 윤리는 루터교에서처럼 신앙이 아니라 은혜 위에 확립되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되며, 일종의 메아리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사를 발하게 한다. 십계명을 제3부 “감사의 생활”에서 다루는 「하이델베르크 신앙문답서」의 구조는 개혁교회의 윤리가 “감사의 윤리”라는 것을 매우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개혁자들의 “오직 은혜로만”이 인간의 모든 ‘업적’(인간들의 노동과 성취)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인간의 책임적인 행위들을 활성화시켜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개혁교회적 강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다시 말하면, 윤리에 대한 개혁교회적 강조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다. 개혁교회 신학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지고, 선택은 또한 교회론의 기초를 이룬다. 칼빈이 어떻게 선택을 성화와 교회의 교리에 연결시키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택에 관하여 칼빈은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나

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엡 1:4). 칼빈은 이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오로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양을 받게 하시려는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기독교강요』, III.22.1, 22.3). 바로 여기에 장로교회의 행동이 지닌 동력의 비밀이 있다.

IV. 장로교의 정치원리

장로교회는 교회의 정치가 신학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 때문에 교회 정치를 진지하게 고려해 왔다. 신앙은 그 자체를 표현하는 형식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로교 전통은 교회 정치의 중요성을 단순히 강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교회 정치는 복음에 종속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것은 칼빈의 가르침 때문인데, 칼빈과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 개혁교회 신학은 결코 교회의 존재가 정치에 의존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교회 정치의 본질은 교회의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성서에 대한 교회의 복종이라는 것이다. 교회 정치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감독제가 합당한가 아니면 장로제가 합당한가, 만약 장로제를 택했다면 두 직분(목사와 장로)이 합당한가 아니면 네 직분(목사, 교수, 장로, 집사)이 합당한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교회의 주님이신가 하는 것이다. 실로 교회의 정치는 인간의 주도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교회의 주님께 순종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어떠한 정치도 그것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한에서만,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그의 모든 결정들을 성서의 표준에 종속시키는 한에서만,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교회 정치에 대한 칼빈의 생각이었다.

1. 칼빈의 교회정치의 특징

칼빈이 제네바에서 그의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가 직면한 사태는 교회조직은 없는데 말씀은 선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로마 가톨릭의 기본조직은 거부되었으나 새로운 것은 아직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빈은 새로운 교회의 질서에 관심을 갖고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기독교 신앙과 생활을 지지해주는 교회조직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가 만든 「교회 법령집」(1537, 1541)은 오늘날까지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를 특징짓는 많은 특성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목사, 교사, 장로, 집사 등 교회의 4가지 직분,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당회조직, 그리고 회중의 도덕생활과 예배참석 등을 감독하는 당회에게 주어지는 권징의 권한, 신자들의 교육을 위한 신앙문답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교회조직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강조였다. 이것은 교회의 모든 형식적인 표지와 모든 구조가 하나님의 은혜에 종속된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올바르게 강조되는 곳에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어떠한 계급질서도 존재할 수 없으며, 다만 종의 사역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므로 칼빈이 제네바교회에서 시행한 장로정치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섬기는 공동체 혹은 몸이며, 모든 구성원들은 그분 아래서 동등하다. 둘째, 봉사의 일은 전체 교회에 맡겨졌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사를 주신 대로 여러 직분자들이 나누어진다. 셋째, 모든 직분자들은 회중의 대표자로서 회중의 선택으로 세움을 받았다. 교회는 전체 교회를 위한 정당한 의사표현을 하도록 선택된 직분자들, 목사들,

장로들의 회에 의해 통치되며 관리된다.

2. 교회정치의 여러 가지 형태

일반적으로 교회는 감독정치, 회중정치, 장로정치라는 이 세 가지 교회정치 형태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한다. 개혁교회라는 명칭은 일차적으로 교회행정 혹은 정치체제가 아니라 하나의 신학적 전통을 언급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개혁교회 전통에 속한 교회들도 그 중 하나의 정치제를 채택해 왔다. 대부분의 개혁교회들은 그들 각각의 교회 역사를 통해 장로교적인 교회정치제도를 채택해 왔지만,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회중교회 정치제나 감독 정치제를 채택한 교회들도 있었다.

우선 감독제 정치형태란 로마 가톨릭교회, 성공회, 감리교회 등이 채택한 정치이며, 이러한 교회들은 교직의 지위와 직무에 있어서 계급상의 차별이 있다고 하는 원리를 주장하고 감독의 관할 하에 있는 교구제도를 갖고 있으며 교직과 신자의 구별을 강조한다. 침례교회에서 그 전형적인 특징을 볼 수 있는 회중제 정치형태는 교직 간의 어떠한 계급제도도 거부하며, 동시에 교회 회의의 위계제도에 대하여 반대한다. 곧 각 지교회의 독립을 주장하는 개교회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교회의 결정을 어떠한 상급회의의 판결에도 복종시키지 않고 교회의 회원들에게 모든 교회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교회이다. 장로교 정치를 채택한 교회는 감독제 정치에 반대하여 교직의 지위의 평등성을 주장하고 그 결과로써 감독의 관할 하에 있는 교구제도가 아닌 소교구제를 채택하며, 또한 회중제 정치에 반대하여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교회 회의의 위계성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장로정치제는 개교회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회중교회와 감독이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감독교회 사이의 중도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3. 장로교 정치원리

칼빈이 장로정치제도의 초석을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제네바교회의 장로직분은 신약성서시대의 초대교회의 장로들과는 그다지 유사하지 않았고, 현대의 장로 직분과 같은 기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또 그들은 오늘날의 장로들과는 달리 회중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네바 시의회에 의해 선출되었다.

그러므로 장로정치제는 교회질서 혹은 구조의 어떤 고정된 형식이 아니라 계속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갖는 하나의 발전적인 형식을 말한다. 이는 장로교회가 각자의 새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롭게 고백하며 항상 개혁하는 교회라는 것을 말해준다. 장로정치제는 어떤 획일적인 제도를 거부하면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예컨대, 장로직이 종신제나 임기제나 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느 한 지역의 상황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또한 장로정치제는 두 개의 전혀 다른 발전모델을 갖고 있다. 미국 장로교회는 회중과 노회로부터 대회와 총회로 발전하였고, 반면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총회로부터 하향식으로 발전하였다. 장로정치제가 갖는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교회질서의 어떤 한 형식을 장로교의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형식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장로교회의 다양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로교회는 하나같이 장로정치제의 고유한 특징을 대변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 원리를 갖고 있다.

1) 성서의 권위

장로교회는 장로정치제가 성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어떤 사람들은 장로정치제가 성서에 규정된 유일한 교회정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여간 공통적인 것

은 모두가 성서의 권위에 호소해 왔다는 점이다. 칼빈은 교회정치의 질서와 형태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분명히 밝힌다. 칼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프랑스 신앙고백」은 “참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통치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칼빈은 교회정치의 세부적인 모든 사항들이 성서로부터 직접 확립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래서 성서에 대한 율법적인 순종을 주장하거나 초대교회를 맹목적으로 모방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는 교회가 처한 시대의 형편에 따라 주께서 정하신 교회의 질서는 변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교회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유리한 쪽으로 관습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것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교회의 새로운 질서를 제정하는 일에는 언제나 사랑을 척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이 해가 되고 무엇이 덕이 되는 지는 사랑이 가장 잘 판단할 것이다. 사랑을 인도자로 삼으면 모든 일이 안전할 것이다”(「기독교강요」, IV.10.30).

2) 교회의 통일성

장로교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구성되는 총회 조직을 통하여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자 한다. 장로교회의 최고 치리회인 총회는 교단에 속한 각각의 노회들, 당회들, 및 개교회들의 통일성을 나타낸다.

대표들을 통한 교회정치라는 장로교회의 근본원리는 칼빈의 인간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칼빈은 한편 통치를 맡길 만큼 선한 사람은 없고, 다른 한편 대중은 교회생활에 필히 있어야 할 중대한 결정들을 하기에는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는 일인 지배의 자만심과 독재를 경계하였음은 물론 대중의 변덕스러움과 무질서도 경계하였다. 그가 신학적 근거를 토대로 인정한 것은 국가와 교회에서 공히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실현되는 대의적 민주주의였다. 그는 어떤 결정이 개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선출된 사람들에 의해서 내려질 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3) 목사직의 동등성

장로정치제의 또 하나의 주요 원리는 목사직의 동등성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개혁교회 신앙고백들 곳곳에서 아주 분명히 표현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참된 목사는 어떠한 곳에서든지 단 한 분의 지배자, 단 한 분의 군주, 전체 교회의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동일한 권위와 평등한 능력을 갖는다고 믿는다. 따라서 어떠한 교회도 다른 교회에 대하여 어떤 권위를 내세우거나 지배할 수 없다”(「프랑스 신앙고백」).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은 동일하고 동등한 권한 혹은 기능을 부여받았다. 확실히 고대 교회에서는 감독들이나 장로들이 교회를 함께 운영했다. 이 시대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어느 감독이나 장로도 다른 동료 감독이나 장로보다 더 큰 권한이나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다”(「제2 헬베티안 신앙고백」).

칼빈은 면밀한 성서주석을 통하여 신약성서에 나오는 ‘감독’, ‘장로’, ‘목사’, ‘교역자’라는 네 가지 직무들이 모두 같은 직무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예컨대, 성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모두 ‘감독’이라고 부르며, 여러 구절들에서 감독과 ‘장로’를 동일시한다(참고, 딤후 1:5-7, 딤후전 3:1이하).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한 기사가 있는데, 그는 그들을 ‘감독’이라고 부른다(행 20:17, 28). 이와 같이 칼빈은 관련된 성구들을 근거로 ‘감독’과 ‘장로’는 같은 직분이라는 장로교회 제도의 근본 원칙을 주장한다. 칼빈은 초대교회의 교회정치 발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당대의 감독직에 대

해서도 목회직의 기본적 동등권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감독직을 반대하지 않았다.

4) 목사의 청빙과 직분자의 선출권에 대한 교회의 자율성

장로정치제도의 또 다른 주된 원리는 교인들이 자기 교회의 목사를 청빙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목사의 청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합법적이어야 함은 물론, 교인들의 동의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더욱이 청빙을 위한 선거는 다른 목사들이 주관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회중이 경박함과 악한 의도나 무질서 때문에 탈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기독교강요』, IV.3.15).

칼빈이 강조한 교인들의 목사 청빙권과 직분자들의 선출권은 그 당시의 상황 때문에 약화되었고, 이 권리는 스코틀랜드와 미국의 장로교인들에 의해서 정착되었다. 노회의 감독 아래서 교인들이 자기 교회의 목사를 청빙하고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 원리들은 한국 장로교회(기장)의 정치에서도 근간을 이루고 있다. 성서에 근거하는 교직과 치리권에 대한 강조, 당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로 구성되는 상회조직을 통한 교회의 연합과 일치,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하는 교직의 동등성의 원리, 목사를 청빙하고 교회의 직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 등등. 최상의 교회정치 제도가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영화롭게 하며, 그리스도의 백성을 계발하여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과 봉사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제도라고 할 때, 그러한 기본 원리들을 바탕으로 하는 장로교의 정치제도는 그것에 가장 근접한 정치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치형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되심,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에 대한 강조, 직분의 계급적 개념과 온갖 외형주의에 대한 반대, 신도 직분에 대한 신적인 소명, 성화의 교리에 의한 윤리적 강조(권징) 등을 통하여 성서의 가르침에 가장 충실한 정치제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